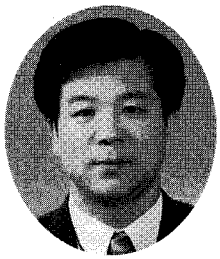
VISION 21 - 21세기 식량부국 이끈다(Ⅵ)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고품질 쌀 안전생산과 생산비 절감기술 보급에 진력할 터

쓰러짐에 강한 양질 다수성품종 확대 재배
벼 생력 재배기술 안전보급으로 생산비 절감



양 동 만
전남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

쌀은 우리 민족의 단순한 먹거리가 아닌 정신문화의 하나요, 백의 민족의 심성을 잇게하는 중요한 고유 전통음식의 하나이다. 밀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들의 식문화는 빵류, 국수, 과자류 등 극히 단순 하지만 쌀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중에서 특히 우리나라는 쌀을 이용한 음식이 다양하여 밥(쌀밥,찰밥,오곡밥, 잡곡밥 등), 떡류, 음료, 죽, 국수, 과자류 등 단순한 먹거리가 아닌 식생활 그 자체이다.

이 땅에 벼가 재배 되었던 시기는 최근 경기도 고양에서 발견된 탄화미로 추정해 볼 때 4,300여년 전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같이 쌀은 우리 민족과 오랜 역사를 같이 해 왔지만 사실 쌀을 자급하게 된 것은 60년대의 서럽고 배고팠던 보릿고개를 넘기고 70년대에 들어 통일벼 품종을 재배하면서 부터 국가 최대 과제 였던 식량자급의 기틀을 다지게 되었다.

그러나 경제 발전과 함께 국민소득 수준이 향상 되면서 식생

활의 변화로 쌀 소비량('99년 96.9kg/1인)이 낮아지고 있고 밥맛이 좋은 쌀을 소비자들이 선호 함으로써 양질 다수성품종을 중심으로 재배되면서 단위당 생산량도 낮아지고 있다. 따라서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 재해로 흉년이 들 경우 남북통일을 대비한 쌀의 지속적인 안정 자급은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커다란 과제임이 틀림없다.

고품질 쌀 지속적 안정 생산

전라남도는 전형적인 농도(農道)로써 미맥(米麥) 중심의 농사가 근간을 이루고 있다. 기름진 땅과 넓은 평야에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충분한 햇볕과 맑은 바람을 마음껏 받아 어느 지역 보다도 좋은 쌀을 생산할 수 있는 천혜의 땅이며 맛 좋은 쌀을 생산할 수 있는 간척지 논 면적도 식부면적의 19%인 3만8천ha에 이르고 있다.

올해 전남의 쌀 생산계획은 20만3천ha에서 품질이 우수하고 맛이 뛰어난 고품질의 쌀 6백80만석을 생산할 계획이다. 이 생산량은 우리나라 국민이 1년동안 소비하는 식량의 21.5%의 양이다. 이와같이 전라남도는 쌀이 농가소득의 37%를 차지하는 기간작목으로써 안정되고 지속적인 쌀 생산은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이다. 그리하여 도복에 잘 견디는 양질 다수성품종 확대재배, 다수확 재배 기술 정밀실천, 과학적인 병해충 예찰로 적기 방제와 함께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핵심기술을 종합적으로 실천하여 고품질 쌀 단위수량을 최대한 높혀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6월13일~15일의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됨에 따라 통일 한국의 주요 과제인 7,000만 국민의 식량 자급기반 조성에도 힘을 쏟아 나갈 계획이다.

2000년 쌀 생산 주요과제

양질 다수성품종 확대재배로 고품질 쌀 안정생산

전라남도는 지리적으로 우리나라 최남단에 위치하여 벼농사 기간중 적어도 2~3개의 태풍이 매년 통과하는 지역으로서 쓰러짐에 가장 취약한 지역에서 벼농사가 이루어 지고 있어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대책 추진이 도 농정의 최우선 과제이다.

금년에는 경종적인 대책으로 단간종이고 쓰러짐에 강하면서 10a당 550kg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대산, 동안, 남평, 농호, 호안벼 등 내도복 양질 다수성 품종을 확대 재배하기 위해 식부면적 대비 85%의 면적에 재배할 수 있는 벼종자 보급을 추진했다.

그 결과 순도가 높은 우량종자를 식부면적 대비 94%까지 확대 보급하였고 들별, 마을별로 한 품종이 20~30%가 넘지않게 숙기별로 안배 재배될 수 있도록 벼 재배 전농가를 대

생산비 절감을 위한 건답직파 연시회

상으로 품종선택 요령과 신품종 재배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농업인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하였다.

550kg/10a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신동진벼, 농호벼, 호안벼, 화봉벼 등 새로운 품종 4백30ha를 자율교환 시범포로 지정하여 2천1백50톤을 생산해 희망농가에 자율교환하여 보급종이 공급되기 전 새로운 우량품종이 신속하게 농가에 보급 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쓰러짐 대책 농업인 교육 강화

올해 새해영농설계교육과 3월 보완교육을 통하여 농업인에게 품종특성과 재배상 유의사항, 물관리, 비료 기준량 주기, 병해충 방제, 간척지 재배기술 등 종합적인 기술을 보급 하였다. 특히 벼 쓰러짐 대책과 신품종 특성, 재배상 유의사항들을 비디오와 스라이드를 제작, 전 교육장에서 실감있는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현장에서 쓰러짐 대책기술이 정밀하게 실천될 수 있도록 도·시군단위 기술지원단 5백84명을 편성하여 종자 확보단계에서 부터 수확시 까지 현지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쓰러짐 대책 종합기술을 투입한 도비 시범단지 30개소 90ha를 전 시군에 설치,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중에 있다.

「질소비료 30% 줄이기」로 비료대 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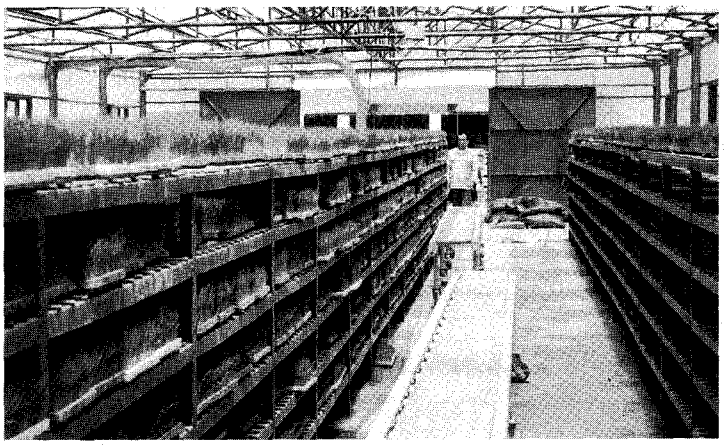
지난해 질소비료 시용량을 표본 조사한 결과 17.4kg/10a 이 시용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악조건의 기상으로 쓰러짐과 이삭도열병 발생 등의 피해를 보았던 사례를 거울삼아 행정, 지도, 농협 등 전 유관기관이 「질소비료 30% 줄이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관행보다 30%를 줄여주게 되면 전체적으로 절감되는 비료 대금이 63억원에 이르게 된다. 뿐만 아니라 튼튼한 벼를 길러 병해와 쓰러짐을 경감 시키고 미질이 좋은 쌀을 생산할 수 있어 1석 4조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의 실현을 위해 새해영농설계교육 부터 밑거름과 새끼칠거름, 이삭거름 등에 소요될 비료량의 조견표를 제작, 전 농가에 배부하고 꼭 실천토록 홍보와 현지 기술보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질소비료는 새끼칠거름을 지나치게 많이 주어 과번무에 의한 웃자람과 도열병 등 병해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새끼칠 거름은 모내기 방법별, 보통논과 염해지별로 구분하여 표준시비량을 주도록 한다. 특히 새끼칠거름은 전년도에 주었던 양의 절반 정도만 주고 이음거름을 주지 않도록 현장중심 기술지원을 하고 있다

깨끗한 들판 조성 위해 잡초약 체계처리

농촌의 노동력 부족과 동일 잡초약 연용으로 저항성 잡초가 등장하고 직파재배 확대로 피, 올방개, 벗풀, 사마귀풀 등이 많이 발생되어 벼농사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농촌 노동력의 노령화와 부녀화, 재배 방법의 다양화로 잡초도 다양하게 발생하여 이제 잡초방제는 한번으로 완벽한 방제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 잡초방제는 재배유형별, 논에 많이 발생하는 잡초의 종류, 처리시기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건답직파의 경우 파종후 담수전에 1차, 담수후 3~5일경에 2차로 체계처리를 하고 만약에 문제잡초가 다시 발생하면 경엽처리제를 3차 처리할 수 있는 잡초방제 기술보급과 농업인 교육을 중점 추진하여 깨끗하고 풍요로운 들판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자동화된 어린모기계모 육묘장

과학적인 병해충 예찰과 적기 종합방제로 피해 최소화

농약 살포에 대한 소비자들의 막연한 부정적 인식이 잠재해 있으나 목표 수량을 올리기 위한 농약 살포는 필수불가결한 방법임에 틀림없다. 병해충 방제는 과학적인 정밀예찰로 결과를 신속히 분석하여 발생전망을 예측하고 적기에 종합방제를 실시, 비용을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병해충 예찰포 22개소 및 관찰포 2백3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또한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실 13개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영농기에는 주 1회 이상 취약지를 중심으로 도·시군단위 순회 기동예찰반을 편성해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병해충 예찰정보를 연중 18회를 발표하여 문제해충인 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벼물바구미,벼멸구 등의 취약농가를 사전에 파악, 카드화 함으로써 빈틈없는 완벽한 적기 종합방제를 실시, 살포횟수를 줄여 소비자가 신뢰하는 안전한 쌀 생산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고품질 쌀 안정생산으로 풍년농사 기필코 이룩

과학 영농기술의 정밀실천으로 생산비를 줄이고 쌀 품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재배기술을 보급함은 물론 남부지방의 오랜 가뭄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적기 안전영농을 실천함으로써 다수확 재배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질 다수성 품종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 쓰러짐 대책 핵심기술의 종합적 실천으로 태풍이 닥쳐도 쓰러지지 않는 벼농사가 되도록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과학적인 병해충 예찰과 적기 종합방제로 피해를 최소화 하고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보급에 전 지도력을 집중시켜 기필코 풍년농사를 이루며 소비자들의 다양한 소비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품질좋고 맛 있는 최고의 쌀 생산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통일 한국의 미래를 위한 안정된 식량 확보에도 전 지도공무원이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농약정보